

# '전설' 이동국, 축구인생 마침표

“부상 때문에 그만두는 것 아나  
정신적으로 약해지는건  
참을 수 없어 은퇴 결심”

1998년 프랑스월드컵서  
‘10대 축구 천재’로 등장  
2009년 전북현대 입단 후  
새로운 전성기 써내려와

23년 축구 인생에 마침표를 찍은 한국 축구의 ‘살아있는 전설’ 이동국(41·전북)이 몸보다 정신적으로 약해진 자신의 모습에 은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동국은 28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은퇴 기자회견에서 “많은 분이 부상으로 그만둔다고 짐작하고 물어보셨는데, 몸 상태는 회복해서 경기에 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태. 부상 때문에 그만두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선수 생활을 하면서 정신이 몸을 지배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번 무릎 부상으로 조급해지는 저 자신을 보고 많은 생각을 했다”며 “몸이 아픈 건 참을 수 있어도 정신이 약해지는 건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은퇴를 결심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동국은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레전드 공격수다.

1998년 혜성 같이 등장한 이동국은 고교 졸업 후 포항 스틸러스에서 프로 데뷔해 당시 차범근 전 감독이 이끌던 프랑스월드컵 대표팀에 깜짝 발탁돼 모두를 놀라게 했다.

벤치만 지킬 것이란 예상을 깨고 이동국은 프랑스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 네덜란드와 경기에 출전해 한국 최연소 월드컵 출전 기록을 작성했다. 그의 나이 만19세2개월로 이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다.

‘오렌지 군단’ 네덜란드의 폭격에 한국은 0-5 완패를 당했지만, 후반 교체로 나온 이동국은 세계적인 수비수들을 상대로 강력한 중거리 슈트를 시도하는 등 당찬 모습으로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꽃길만 걸을 것 같던 이동국은 자국에서 열린 2002 한일월드컵을 앞두고 선수 생활의 첫 시련을 겪었다. 거스 히딩크 대표팀 감독은 이동국의 수비 기량 능력을 지적하며 그를 최종 명단에서 제외했다.

이동국은 “2002년 월드컵은 축구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중 하나”였으며 “당시 심정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았는데, 지금까지 운동할 수 있었던 보약이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월드컵 약진은 4년 뒤인 2006년 독일월드컵에서도 계속됐다. K리그 무대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치던 이동국은 월드컵을 목전에 두고 무릎 인대가 파열되는 큰 부상을 입고



K리그의 살아있는 전설 이동국이 은퇴 기자회견에서 백승권 전북현대 단장에게 꽃다발을 받고 있다. (사진=전북현대 제공)

눈물을 흘렸다.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월드컵에서도 대회 전 부상으로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다. 우루과이와 16강전에 교체로 나와 경기 막판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으나 슈팅이 발동에 제대로 연결되지 못했다.

‘음주 파동’도 이동국 축구 인생 옥에 티로 남아있다. 2007년 아시안컵에서 물의로 1년간 대표선수 자격이 정지되는 중징계를 받았다.

또 그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미들즈브러에 입단하며 2001년 독일 분데스리가 베르더 브레멘에 이어 두 번째 유럽 도전에 나섰다. 적응 실패로 1년 만에 짐을 싸다.

이동국은 2009년 최강희 감독의 전북 현대에 입단하며 축구 인생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했다.

전북은 이동국의 화력을 앞세워 K리그 우승 7회,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우승 1회 등 K리그와 아시아 무대를 대표하는 구단으로 거듭났다.

이동국은 K리그 통산 547경기 출전해 228골 77도움을 기록했다. 전북 소속으로는 300경기 164골 48도움이다. AFC 챔피언스리그에서

도 75경기에서 37골을 넣어 이 대회 최다골 보유자다.

이동국은 프로 무대와 대표팀에서 뛰며 총 844경기 출전해 한국 선수 역대 최다인 344골을 넣었다.

그는 “한 골 한 골이 다 소중한데, (2004년) 독일전 발리슛을 했을 때 기억이 가장 많이 난다. 공이 발에 맞는 찰나의 순간은 아직도 생생하다”라고 말했다. 당시 독일의 골문을 지킨 수문장은 전설적인 골키퍼 울리버 칸이었다.

무엇보다 이동국은 전북에 ‘우승 DNA’를 정착시킨 대표적 선수다.

지난해 울산 현대에 짜릿한 역전 우승을 거둔 뒤 전북 후배들 하나 같이 ‘선배’ 이동국을 원동력으로 삼은 이유다. 올해도 전북은 최종전을 남기고 울산에 승점 3점 앞선 1위에 올라 있다.

이동국은 “마지막 경기에서 우승컵을 들고 은퇴한다면 정말 멋진 일이 될 것이다.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라면 얼마든지 울 수 있다. 마지막 트로피를 들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시스

## LA 다저스, 통산 7번째 WS 우승

MLB 탬파베이와 6차전서 3-0 승리  
탬파베이, 창단 후 첫 WS 정상 좌절



LA 다저스가 32년 만에 감격의 월드시리즈(WS) 우승을 차지했다. 다저스는 28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필드에서 열린 월드시리즈(7전 4선승제) 6차전에서 3-0으로 승리했다.

1988년 이후 월드시리즈 우승이 없었던 다저스는 32년 만에 한을 풀었다. 통산 7번째 월드시리즈 왕좌에 올랐다.

다저스의 무기 벤틀은 역전의 신호탄이 되는 2루타를 날렸고, 8회말 솔로 홈런을 쏘아 올려 우승에 일등공신이 됐다.

알렉스 우드와 빅터 곤잘레스 등 다저스 불펜진은 무실점 계투를 선보여 우승을 이끌었다.

탬파베이는 창단 후 처음으로 월드시리즈 우승을 노렸지만, 타선이 침묵하면서 고개를 떨쳤다.

승리가 간절한 탬파베이가 선취점을 올렸다.

탬파베이 2번타자 랜디 아로자레나는 1회 초 1사 후 다저스 선발 토니 곤잘레스를 상대로 솔로 홈런을 터뜨려 기선 제압에 앞장섰다.

이후 눈부신 투수전이 펼쳐졌다.

탬파베이 선발 블레이크 스넬은 5회까지 1안타만 내주고 무실점 역투를 펼쳤다.

다저스 선발 곤잘레스는 일찌감치 마운드를 내려갔지만, 다저스는 철벽 계투진을 앞세워 추가 실점을 막았다.

월드시리즈를 6차전에서 끝내려고 총력

전을 펼친 다저스는 6회말 공격에서 오스틴 반즈의 안타로 상대 선발 스넬을 마운드에서 끌어내렸다.

이후 무기 벤틀이 2루타를 날려 득점 찬스를 잡았다.

다저스는 곧바로 니 앤더슨의 폭투를 틀러 동점을 만들었고, 코리 시거의 1루 땅볼 때 벤틀이 홈을 파고 들어 역전에 성공했다.

다저스 벤틀은 8회 3회 솔로 홈런을 날려 사실상 승부를 갈랐다.

홀리오 유리아스는 2루이닝 무안타 4탈삼진 무실점 패투로 월드시리즈를 6차전에서 끝냈다.

탬파베이 최지민은 1루수 겸 1번타자로 선발 출전에 2사 무안타 1볼넷을 기록했다.

비랑 끝에 몰렸던 탬파베이는 6차전에서 최지민을 선봉장으로 투입해 분위기를 반전을 노렸다. 그러나 기대했던 최지민의 장타는 나오지 않았다.

최지민의 올해 월드시리즈 타율은 0.111이다. /뉴시스

## ‘메시와 불화’ 바르셀로나 회장, 자진 사임

내달 초 재신임 투표 앞두고 물러나



스페인 프로축구 FC바르셀로나의 조셉 마리아 바르토메우(57·스페인·사진) 회장이 스스로 물러났다.

바르토메우 회장은 28일(한국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홈구장인 캄푸 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와 이사진 전체가 사임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14년 바르셀로나 회장직에 오른 바르토메우 회장은 6년 9개월 만에 팀을 떠나게 됐다.

바르토메우 회장은 부임 후 2014~2015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포함한 트레블(3관왕)을 이끌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성적 부진과 함께 바르셀로나의 상징과도 같은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와 불화를 겪으며 팀을 떠나기로 했다. /뉴시스

바르셀로나는 2019~2020시즌 프리메라리가 정규리그 우승 실패에 실패했다.

또 UEFA 챔피언스리그 8강전에선 바이에른 뮌헨(독일)에 2-8 참패를 당하며 무관에 그쳤다.

이번 시즌엔 지난 24일 레알 마드리드와의 엘 클라시코에서 1-3으로 완패하며 최근 3경기 무승(1무2패) 부진에 빠진 상태다.

뿐만 구단 회원 1만6,000여명이 바르토메우 회장의 불신임 청원에 동의하면서 내달 초 15만여명 회원의 재신임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논란이 거세지자 바르토메우 회장은 투표를 앞두고 스스로 물러났다. 그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였다. /뉴시스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전주매일 캠페인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